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 3위의 LNG 생산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미쓰비시상사는 2005년에만 1,400억 엔을 천연가스 사업에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세계 메이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JBIC은 국제금융 등 업무 승인액 중 약 30% 정도를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과 에너지 개발경쟁이 치

열해지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 역시 자원보유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및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은 진】

#### ◆ 캐나다 EDC, 멕시코 PEMEX 앞 2.5억 달러 직접대출 지원

EDC는 멕시코 국영석유가스회사인 PEMEX에 대해 총 55억 달러규모의 협조용자 프로젝트에 공동주관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본 협조용자에는 Calyon, HSBC, Citigroup 등 6개 상업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간 EDC는 PEMEX와 장기간 거래의 당사자로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1988년부터 2005년까지 PEMEX에 대해 총 4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PEMEX는 이 기간에 총 182건의 수출계약(4억 2,500만 달러 상당)을 51개 캐나다기업에 발주한 바 있다.

한편, EDC는 2005년 중 캐나다의 대 멕시코 수출금액의 54%에 해당하는 수출거래를 지원하는 등 캐나다 기업의 대 멕시코 시장진출 및 수출거래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박 해 선, 뉴욕사무소】

#### ◆ KfW Entwicklungsbank, 인도 전력성 앞 70백만 유로 지원

KfW Entwicklungsbank<sup>2)</sup>(Development Bank, 이하 'KfW'로 약칭)는 2006년 8월 6일 인도<sup>3)</sup> 전력성(Ministry of Power) 및 농촌전력공사(Rural Electrification

Corporation: REC)와 양허성 대출 7,000만 유로와 무상원조 50만 유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자금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에너지 효

2) KfW Entwicklungsbank(Development Bank)는 KfW금융그룹내 개도국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은행으로,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협력개발부 관할 하에서 정부재원 및 자체조달자금으로 개도국 정부 앞 양허성대출(유상원조), 무상원조, 혼합신용 등을 지원함. KfW금융그룹의 구조에 관해서는 수은해외경제 2006. 2월호 p.122 참조.

3) 인도는 KfW가 지원하는 독일 개발원조의 주요 수원국으로, 2005년의 경우 승인기준으로 최대 수원국이었음. KfW는 인도에 대한 우선지원분야(Priority Areas of Cooperation)로, 효율적인 전력 생산 및 환경 보호,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공급 및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음.